

122. 엘리베이터 제작공에서의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성별 남 **나이** 54세 **직종** 엘리베이터제작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신OO은 OO엘리베이터(주)에 1983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엘리베이터 천정 플로어 조립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2년경 부터 팔꿈치 통증과 요통 증상이 있었다. 2005년에 좌측 팔꿈치의 외상과염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OO엘리베이터(주)는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사업체이다. 근무는 주 5일 근무제로써, 8:30 - 17:30까지이며 그 후 20:30까지 잔업을 수행한다. 근로자 신OO은 1983년 10월 티센크루프 동양엘리베이터(주) 입사이후 1990년 12월까지 7년간 천정 플로어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91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0년간 천정 Spot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천정조립작업을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현재 작업 내용을 보면, 천정조립작업은 케이스와 프레임 조립후 천정과 최종 조립하는데 에어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완성품 조립후 모노레일(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천정조립작업은 여러 완제품이 있어 작업공정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프레임과 케이스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달에 400대(15~20대/10시간)의 같은 제품을 반복조립하기 보다는 생산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제품을 조립하며, 작업속도는 근로자 스스로 조절이 가능했다. 근로자 신OO의 천정 조립작업 중 인력 취급작업(들기, 밀기/당기기)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결과 높은 위험도를 보이나, 인력 취급작업을 포함한 허리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작업들의 노출시간은 전체 작업시간의 5.0~10.9%였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신OO은 2005 년경에년전에 좌측 팔꿈치의 외상과염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최초 진단받고,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4. 결론: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신OO은,

- ①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 ② 천정 조립작업 중 인력 취급작업(들기, 밀기/당기기)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높은 위험도를 보이나,
- ③ 인력 취급작업을 포함한 허리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작업들의 노출시간은 전체 작업시간의 5.0~10.9%로 크지 않게 나타나,

근로자 신OO의 작업공정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및 산업의학적 분석에서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